

상명학원 상임이사직 소문을 우려한다.

상명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교내에 상명학원 이사회 상임이사직에 김종희 이사가 오를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2019년 우리 대학이 무리한 학부제 추진으로 내홍을 겪을 당시 향후 설립자 가족을 학교 보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언한 이준방 전 이사장의 약속과 김종희 행정대외부총장의 보직해임으로 학교가 평온을 찾은 것을 잊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1년 김종희 법인 이사 선임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임이사는 일반 이사와 달리 매일 법인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실질적으로 학원의 행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준방 이사님, 또 한 번 약속을 어긴다면 우리 대학을 지탱해온 당신에 대한 믿음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교협과 교수노조는 김종희 이사가 설립자 가족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이력과 행동을 놓고 볼 때 상명학원 경영에서 손을 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김종희 이사는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법인 이사로서도 부적절합니다. 지난 12월 말 여성가족부가 한국청소년단체연합회장으로 추천된 걸스카웃총재 A에 대해 회장승인을 거부하는 연합회 60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는 과거 상명대에서 동문회비와 동문장학금을 횡령하여 유죄판결 받았고, 교육부 감사결과로 인한 배임혐의로 고발된 상태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이 청소년들의 귀감이 돼야 할 단체의 수장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한국경제 2023.12.25, 오마이뉴스 2024.1.6.). A가 누구인지 굳이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김종희 이사가 진정 학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2022년 하반기 전체교수회의(8.23)에서 권기환 기획부총장은 납입 기한이 다가온 21, 22년도 법인전입금 8억원 중 이준방·김종희 이사 부부가 각각 2억원과 5억원을 약정했다고 당당하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2023년 상반기 전체교수회의(2.22)에서 강태범 이사장은 밀린 법인전입금 8억원을 이준방 이사(3억원) 이세정 교수(2.5억원) 부녀와 법인(2.5억원)의 노력으로 겨우 마감일을 맞추어 납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립자 가족에서 해결했거니 했던 우리는 얼마 전 김종희 이사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그 돈을 채우

느라 법인과 이준방 이사 부녀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종희 이사는 지금까지 약정한 5억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막상 5억원을 내려니 아까웠거나 대학인증취소 사태가 자신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책임있는 설립자 가족이자 법인 이사가 할 행동은 분명 아닙니다.

이참에 교협과 교수노조는 총장에게 미래백년관과 한누리관 로비를 장식한 발전기금 기부액의 납입 현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려운 살림에도 월급에서 다달이 기부금을 나누어 내온 교직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호기롭게 거액의 기부금을 약정해놓은 분들이 언제 어떻게 약속을 이행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와 책임감이 나 애교심을 이야기합시다.

여러분은 우리 상명대학교가 교수가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곳, 구성원이 소통하면서 경쟁환경을 헤쳐가는 곳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교내에서 이해관계자 간 적절한 상호 견제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권력에 존중을 기대하는 것은 주종관계에서나 있습니다. 법인의 독주는 더는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2019년 교협의 결성이고 2023년 교수노조가 끌어낸 임금인상이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김종희 이사는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스스로 구성원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우리는 김종희 이사의 상임이사직 임명이 기우일 것으로 생각하나, 만약 실제로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학내 불안과 외부의 질타는 법인과 김종희 이사의 몫이 될 것이라고 밝힙니다.

2024.3.11.

상명대학교 교수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상명대학교 지회